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20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1월 4일 (음력 11월 18일) 목요일

뉴스시 · 사랑방닷컴 등 6 · 13지방선거 출마예상자 분석

## 광주 · 전남단체장 50~60대 · 정당정치인 주류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등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예상 후보자는 총 192명으로 평균 6.6대 1의 경쟁률이 예상된다.

이날 뉴스시 사랑방닷컴과 무등일보 사랑방닷컴이 공동 제작하는 '사랑방뉴스룸(news.sarangbang.com)'이 2일 오픈한 '2018 지방선거 특집페이지'를 중심으로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단체장 출마 예상 후보자를 자체 집계한 결과다.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광주 5개 구청장, 전남 22개 시장·군수 등 29개 선거구

29개 선거구 6.6대 1 경쟁률...광주시장 11명 최고

여성 예비후보 고작 6명 뿐...새얼굴 보기 드물어

에서 192명이 출마할 것으로 보여 6.6대 1의 경쟁률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등 야권의 후보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아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장 선거는 11명이 출마할 것으로

보여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 5개 구청 가운데는 민형배 청장이 광주시장 도전으로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광산구청장 선거가 9명으로 출마 예상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북구청장(8명), 남구청장(7명), 동구청장(6명), 서구청

장(4명) 선거 등의 순이었다.

전남지사 선거는 6명의 출마 예상자가 거론되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는 장흥군수 선거가 10명으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진도군수 9명, 나주시장·담양군수 각 7명, 신안군수 6명 등으로 경쟁률이 높았고 장성군수 선거는 2명으로 가장 낮았다.

정당별로는 광주·전남지역 전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출마 예상자가 104명(54%)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국민의당 65명(34%), 정당없음이나 무소속이 23명(12%)으로 나타났다.

경력과 직업별로는 현역 단체장과 전·현직의원 정당간부 등 정당정치인 출신이 130명(6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전·현직 공무원 36명(19%), 경영·기업인 14명(7%), 시민단체 활동가 7명(4%), 법조계 3명(2%), 학계 2명(1%)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 88명(46%), 50대 88명(46%)으로 가장 많았다. 70대 11명(6%), 40대 5명(3%) 등의 순이었다.

광주는 전체 33명 중 50대가 25명(76%)으로 가장 많은 반면, 전남은 142명 중 60대가 76명(54%)으로 가장 많았다. 70대는 전남에서만 10명이나 됐다.

여성 출마 예상자는 광주지역에서 시장 선거 1명, 광주 동구청장과 남구청장, 광산구청장 선거에 각각 1명 등 총 4명이다. 전남에서는 여수시장과 영암군수 선거에 각 1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의 후보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지방선거 경쟁률은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새해 시작은 금연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아 금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3일 오후 경기 수원 영통보건소에서 시민들이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하고 있다.

**Photo 漫評**

행선지는?

지난 연말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정병주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향후 거취에 대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는 열어놓긴 하지만 나가는 게 맞나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현재는 당적이 없다. 재보선이나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더불어민주당 입당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정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복권되고 나서 빈틈이 너무 뜨거워서 저도 놀랐다"며 말을 이었지만, 출마 가능성을 아예 단지는 않았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조인호 · 자료사진=뉴스시

서울시장 자리가 매력적이라...

정봉주

나 아직 마음 안 비웠는데...

박원순

경기도지사 안 넘어서 다행이네...

이재명

## 한전공대 설립 국제건설팅 용역 '7일 발주'...9월 완료

한전 "용역추진 과정서 지자체 부지 추천 받을 수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전공대 대학(케코텍·Keppo Tech) 설립 준비작업이 본격화 됐다.

한국전력은 '한전공대 설립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해외 컨설팅 용역을 5일간의 사전 정보공개를 거쳐 오는

7일 발주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40여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2월 말에 제안서 평가 후 용역 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이 될 이 용역의 과업범위는 환경 분석, 설립 방향 실행 방안, 설립 지원 등 4가지 분야로 이뤄졌으

며, 용역은 오는 2월말에서 9월까지 단계적으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정체성과 방향 정립, 대학 명칭개발 등이 포함된 설립 타당성을 검토한다. 2단계에서는 분야별 실행방안 설계, 법률·인허가 등 설립지원, 캠퍼스 건립 콘셉트, 분야별 계획서(시설·부지이용·인허가) 등이 포함된 '대학설립과 캠퍼스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광주와 전남지역 최대 관심사인 '대학설립 후보지' 부분이 포함된 2단계 캠퍼스 건설 기본계획 용역 보고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감에 따라 지자체 간 용역 결과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한전은 현재 지자체로부터 부지 추천을 받지 않았지만 용역 추진과정에서 부지 추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대 설립부지 최종 선정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한전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심사위원회를 통해 후보지별 종합평가를 거쳐 공대 입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정은 행복해지고 청년에게 일자리가 생깁니다**

**장시간 근로 체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준수하면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